



[녹차밭, 사진 이철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비가 내린 가운데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들
판의 나무들은 신록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춘계학술대회를 찾아주시고 건강심리학
회 회원들이 하나되는 자리를 빛내 주신 회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10대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이 구성되고 난 후 첫 학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회원들이 이룬 연
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과 더불어 ‘건강 증진의 개요와 정책’과 ‘논문평가 관련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심리학연구자의 대처’라는 심포지엄을 마련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심리를 바라보
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취임식에 ‘회원들이 신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실천적 기여를 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내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건강걷기대회: 축석루 걷기’를 개최하기도 하여 회원님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실시하여 본 취지가 반감되었지만, 회원의 건강도 챙기는 행사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인 ‘행복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건강행복마
음”의 전경구 선생님을 초대하여 워크숍을 마련하였는데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건
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의 큰 병폐중의 하나인 ‘중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사행산업실태를 알아보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건강심리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상담 기법의 하나인 ‘동기강화상담’을 알아보는 시
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심리학회의 막중한 임무중의 하나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회가 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소아당뇨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건강관련분야와 협력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유지
에 이바지하는 바탕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하계학회에는 ‘수면과 건강’이란 주제로 경북대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뵈
는 때까지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학회 회원여러분과 우리 학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회원들이 신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실천적 기여를 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제10대 한국건강심리학회장 이민규

2012 춘계학술대회 소개

‘행복, 중독과 건강’이란 주제로 2012년 춘계학술대회를 경상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아당뇨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서로간 긴밀한 협조관계로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장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증 전달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건강행복마을”의 전경구 선생님을 초대하여 ‘행복’에 대한 워크숍을 열기도 하였고 중독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게시논문발표가 있었고 두 번째 날에는 학술발표(구두)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우수논문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건강심리학회와 회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 저 모



준계학술대회 마치고

글: 전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1학기 홍미나

제43차 한국건강심리학회를 마치고

지난 3월 30일,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겨울비와 함께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상대학교 남명학관에서 제 43차 한국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작년에도 학부생의 입장에서 건강심리학회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학회는 올해 대학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참여한 학회였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 그 의미가 특히 남달랐던 것 같다. 학부 때는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변인’같은 느낌이었다면, 대학원생이 된 후 참여한 본 학회는 이전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짜 ‘배움’을 얻으러 갔던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번 학회는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도 다가왔다. 대학원에 입학한 지 몇 개월이 지나 이 생활에 적응을 해 가고 있는 기간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할지 조금은 혼란스러운 기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학회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 번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수여식을 보면서 2년 뒤에 나도 저 자리에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행복’에 대한 워크숍과 ‘중독’에 대한 워크숍을 듣고 나니,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동기강화상담’이었다. 동기강화상담은 임상가로서 그리고 심리학자로서 앞으로 내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약간의 기법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다. 동기강화상담 워크숍을 보고 난 후 이것을 단지 상담 장면에서만 국한되어 사용하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 장면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그 효과 역시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직접 동기강화상담을 실습해 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처음으로 참석한 이번 건강심리학회는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동시에 관심 있는 세부분야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동기부여를 해 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큰 의미가 있었고, 비오는 중에서도 건강걷기대회를 통해 경남 진주의 아름다운 우경(雨景)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감회가 새로웠다.

아쉬움보다는 많은 것을 배웠고 두 손 가득 얻어 가는 것이 많았던 학회였던 만큼, 다음에 있을 제44차 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가 기다려진다.



하계 학술대회는 어디서??

- 국립 경북대학교 임상/건강심리 연구실 탐방 -

◆ 국립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소개

경북대학교 심리학과는 1980년 3월 1일에 신설된 이래, 2012년 현재 7명의 교수님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은 임상심리, 상담심리, 소비자심리, 발달심리, 지각심리, 인지심리, 인지신경과학 등 세부전공이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를 지은 김영환 교수님과 ‘네 마음 내가 안다’를 지은 최광선 교수님 등이 심리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는 조현춘, 진영선, 곽호완, 박영신, 장문선, 김지호, 김초복 교수님이 후학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심리학과는 “인간사랑”이라는 구호아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하고 나아가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고 인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많은 선배님들은 심리관련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심리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현동에 자리잡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북대학교 심리학과**로 오세요! 앞드려 현모(伏以賢慕)합니다.

◆ 연구실 소개 (임상/건강심리연구실)

안녕하세요! 저희 경북대학교 임상/건강심리연구실은 장문선 교수님의 지도 아래 임상, 건강심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도 가능하다!’는 기치아래 “심리학개론 연구모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건강심리전문가와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기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심리검사 연구모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연구법 연구모임”까지 학기별로 다양한 연구모임을 항상 사랑으로 이끄는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능력배양과 실제적인 임상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병원에서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말을 하고 치료자의 말을 할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쇠소리와 팽파리 소리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마음 수양을 위한 명상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상/건강심리 실험실 학생들은 작은 것을 실천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건강심리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달팽이가 되려 합니다.



수-1-이-....-기! 달팽이가 엄청 빨리 달려가는 소리!

◆ 연구실 활동

기본적인 연구 활동 이외에도 저희 연구실에서는 대구지역의 병원, 교육청, 경찰청 및 관련 센터들과 연계하여 임상 장면 뿐 아니라 심리학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문제와 관련해서 대구지역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상치유프로그램의 활용과 관련된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인 사이버 폭력(Cyber bullying)의 원인 및 기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연구실에서는 부부치료, 성인 ADHD와 관련된 다양한 기제와 관련된 연구, 초기 대상관계와 정신병리와의 연관성, 스마트폰 기반 신경심리검사의 개발 및 적용, 명상치유프로그램의 적용, 심리치료의 효과분석, 중독관련 기제에 대한 실험연구 등 건강 및 임상장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졸업한 선배님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의 동문들은 병원, 경찰청, 검찰청, 교도소, 보호관찰소, 병무청, Wee센터, 중독관련 기관 등 여러 장면에서 건강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실험실은요~



우리 속담이나 고사성어에 숨겨진 심리학의 '다빈치코드'를 찾아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질투심리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이다.



1. 보편적 심리인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속담이고 속담의 본질보다는 자구대로 해석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민족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정말 잘못 된 말이고 견해이다. 이는 질투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일 뿐이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1954년 현대 심리학의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인 Festinger는 사회비교이론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심리를 공식화했고 Tesser는 자기평가 유지모형으로 발전시켰다.

Tesser는 어떤 상황에서 타인성공의 반사효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느끼고 타인성공에 대해 긍지를 갖기도 하고, 타인성공의 비교효과로 질투나 좌절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는 심리로 ‘질투’라는 정서가 유발되고 질투정서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속담을 통해 잘 나타내었고 우리 선조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의 소산이라 여겨진다.

여자가 질투심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심리가 많고 적고의 차이이다.

2. 생물학적으로 타당한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은 과학적으로 옳을까? 위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고 자율신경은 본인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신경을 말하고 감정이나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 긴장과 같은 자극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위의 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요인으로 위의 운동이 저하되어 소화불량증세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신경성 위염’이라 하기도 한다.

최근의 연구가 이를 증명하는 결과를 일본의 히데히코 타카하시 박사팀이 발표하였다. 질투가 유발될 때 활성화되는 뇌영역과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같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른 사람보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더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칠정상(七情傷)이라고 한다. 칠정(七情)은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悲), 공(恐), 경(驚)의 7가지 감정으로, 이러한 칠정에 의해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 사촌이 땅을 사게 됨으로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유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칠정상이 생기면 오장육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간의 작용이 나빠지면 복통이 유발된다고 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한의학의 영향을 받은 속담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 한의학적으로 간은 우리 몸의 근육을 주관하며 쓸개와 더불어 지방 등의 소화기능에 관여해 막힌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3. 심리학적 거리는 어느 정도?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그 남이 1촌, 2촌이 아닌 4촌인가 의문이다. 왜 사촌일까?

농경사회이고 씨족사회인 우리나라 문화에서 심리적 거리를 느끼는 것이 ‘사촌(四寸)’이라는 이야기이다.

Tesser는 자기평가모형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비교효과와 반사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는데 이 속담에서 우리 문화의 심리적 거리를 ‘사촌’이라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과거 농경사회이고 씨족사회에 해당하고 현재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면증, 고혈압과 관계있다.

불면증이 고혈압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헨리포드 병원 수면장애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드레이크 박사가 불면증이 있는 5314명과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불면증이 심할수록 혈압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ScienceDaily: June 6, 2012)가 보도했습니다. 설문은 불면증상, 고혈압존재와 심각성, 수면습관,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밤 중에 잠이 깨는 빈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고혈압이 심하였다고 연구는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2012년 보스턴수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불면증은 수면시작과 유지가 어려운 것을 말하고 미국의 가장 일반적인 수면 장애이다. 수면장애연구센터에 따르면 성인의 30-40%가 불면증상을 보이고 10-15%는 만성적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발표했다.



침으로 감정을 본다

기쁨·슬픔·우울함 등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갖는다. 신체 건강 상황과 감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병이 들면 우울한 감정이 들기 쉽고 반대로 감정 상태에 따라 신체에 변화가 온다.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감정은 본인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기 어렵다. 환자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데 심리상담과 정신 분석 방법이 이용된다. 문제는 이들 방법이 치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환자의 감정이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 장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 이르면 3년 뒤 간단한 바이오 칩 하나로 즉석에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침 속에 나타나는 감정= 국내 연구진이 바이오칩을 이용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정효일 연세대 교수팀은 바이오칩으로 감정을 읽는 ‘감성진단 칩’ 개념을 제시하고 관련 전자소자를 개발했다. 소자는 스트레스 호르몬 일종인 ‘코르티솔’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진주파수 변화 값을 표시한다. 소자 위에 코르티솔을 인지하는 항체를 올린 뒤 침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이 상태의 공진주파수를 측정한 뒤 코르티솔이 없을 때의 공진주파수와 비교해 코르티솔 농도를 확인한다. 침 속 코르티솔 농도가 높을수록 주파수 변화 값도 크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코르티솔 농도가 높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증거다.

코르티솔과 함께 알파아밀레이드라는 호르몬도 있다. 이 호르몬 역시 침 속에 있는 것으로 스트레스 관련 지표가 된다. 스트레스 지표는 학교나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침을 통해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을 선별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스트레스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나아가 희열이나 감동 같은 감정도 측정하기 위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내분비과 의사와 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다. 상담과 임상 결과를 참조해 감성 지표로 사용할 물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 2012년 6월 17일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연못삼총사:일청담, 지도못, 만오원〉

제44차 건강심리학회 건강걷기대회는 경북대학교 캠퍼스를 걷는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유명한 곳 중의 하나인 ‘본관건물’과 ‘백양로’에 얽힌 전설과 연못삼총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본관건물에 ‘태권V가 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뚝 모양의 지붕이 열리고 거기서 태권V가 나와서 뒤편의 배수탑을 추격한다고 합니다. 태권V에 대한 추억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전설의 태권V를 만날지 모르니까요.

볼록한 뚝 모양의 지붕을 가진 본관을 보면서 아마도 학생들이 만든 전설이라 여겨집니다. 태권V만화영화가 1976년에 김정기 감독이 만든 영화이니 76학번 이후 대학생들이 만든 전설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아마 55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태권V전설은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기치를 높이면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학생들이 나누던 재미난 ‘술안주거리’였습니다.

백양로는 일명 ‘러브로드’로 불리고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수십년 역사의 플라타너스 나무 거리입니다.

옛날 밤대 남학생과 사대 여학생이 사랑을 키워나고 있었다고 한다. 여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어 사시준비를 하던 남학생을 뒷바라지했고 그렇게 둘의 만남은 이어졌다. 하지만 남학생은 사시 합격 후에 그 여학생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단다. 이에 절망한 여학생이 자신들이 자주 만났던 러브로드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서 러브로드를 ‘연인이 함께 걸으면 그 여학생의 슬픈 영혼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는 전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후에 이 전설이 새롭게 재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정문에서 본관 방향으로 걸어오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반대쪽으로 걸어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인이 서로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길이 끝날 때 까지 걸어가면 사랑이 깨지지 않는다.’ 등의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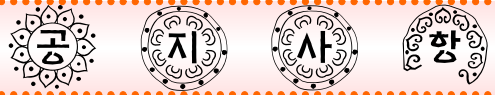
언제나 젊음의 활력이 넘치는 일청담. 학교의 상징인 감꽃을 형상화하여 만든 인공연못으로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거닐기 좋아 학교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개나리와 벚꽃, 사철나무로 잘 정돈된 연못 주변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솟구쳐 오르는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한층 그 싱그러움을 더한다. 지리적으로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박물관과 월파원, 꽃시계, 본관 등이 주위에 있어 각종 행사와 모임의 장소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기도 하다.

공대11호관 앞마당에 자리 잡은 한반도 모양의 연못. 이름하여 지도못이다. 서늘한 나무 그늘과 적당한(?) 장소에 자리 잡은 벤치 덕분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수련과 투명하게 비치는 하늘, 그리고 운치있는 나무다리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한다. 풍문에 따르면 지도상 우리 학교의 위치에 작은 분수가 있었다고 하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길...

만오원이란 이름보다 박테라 연못으로 더 유명한 곳. 동그란 연못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다리 때문에 ‘반달못’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의 자랑은 다섯 개의 정자. 연못 주위로 늘어서 있어 백양로를 거닐다 한가로이 쉬기에 안성맞춤이다. 영산홍, 왕벚나무, 이팝나무, 적송 등의 꽃나무는 봄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한다. 특히 이곳에는 수액으로 유명한 고로쇠나무가 다섯 그루 가량 심겨있다고 하니 연못 주위를 걷는 때 찾아보시길...



회원동정



■ 아시아 건강심리학회 총회 일정 확정

1. 일시: 2012년 8월 15일-17일
2.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3. 조직위원장: 덕성여자대학교 김정호 교수
4. 강연예정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마틴 셀리그만
미국 미시건대학 크리스토퍼 페터슨
미국 마이아미대학 찰스 카버 등

■ 한국건강심리학회 명상심리연구회

1. 일시: 2012년 5월 26(토)
2. 장소: 아라빌딩4층 유켄센터
3. 내용: 행복의 과학적 탐구(권석만교수)
MBSR워크숍(안희영교수)

■ 부산경남경북지부학회 창립 준비대회

1. 일시: 2012년 5월30일(수) 15:00
2. 장소: 부산 아이온시티 빌딩 아이온 파티
3. 지회명칭: 가칭 '남동부지회'
4. 회장: 경북대학교 장문선교수



■ 경상대학교 임상/건강심리연구소 10주년 기념식

1. 일시: 2012년 6월5일(화) 20:00
2. 장소: 경남 삼천포시 남일대 리조트 엘리너스호텔
3. 내용 ○ 1부: 이민규교수의 행복특강
○ 2부: 연구소 발자취(우리들이야기)

■ 춘계학술대회

- 일시: 3월 30일(금)~3월 31일(토)
- 장소: 경상대학교(진주)

■ 하계학술대회

- 일시: 6월 15일(금)~6월 16일(토)
- 장소: 경북대학교(대구)

■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 일시: 8월23-25일
- 장소: 미정

■ 동계학술대회

- 일시: 12월7일-8일
- 장소: 삼육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서울)

■ 학교소개 원고 모집

건강심리지 다음호(3호)에 게재할 학교소개 원고를 모집합니다. 자신의 학교와 학과를 건강심리학회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주요활동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 회원동정소식 원고 모집

건강심리지 다음호(3호)에 게재할 회원님들의 동정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동정도 보내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원고모집

건강심리소식지(건강한 삶 행복한 마음)에서 다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시, 소설, 수필, 사진 등 아무거나).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심리학회원과 가족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 원고 보내실곳

chull357@hanmail.net
chijilove@korea.kr